

油價引下에 즈음하여



李 宣 基

〈動力資源部長官〉

國民여러분!

政府는 82年 3月 11日 零時를 期하여 石油製品 價格을 평균 2.82% 引下 調整기로 決定하였읍니다.

世界石油事情은 政治·經濟的인 複合要因에 依하여 하루 앞날을 내다 볼 수 없는 不確實性的의 속성을 基本的으로 지니고 있으나 이와 같은 可變的인 要因을 접어두고 最近 石油市況을 살펴보면 상당한 供給過剩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次에 걸친 油類波動으로 因하여 世界石油需要가 계속 減少推移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供給側面에서는 產油國들의 財政充當을 위한 生産增加와 메이저 등의 在庫放出로 因하여 현재 하루 約200萬배럴程度의 供給過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需給緩和상황을 반영하여 國際原油價格은 당분간 安定 또는 下落勢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政府는 昨今 展開되고 있는 石油市況을 銳意注視한 끝에 第2次 油類波動이후의 原油價 多元化 상황하에서 불가피하게 設置運用하여온 原油價 平準化制度를 廢止하기로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1年 10. 29日 第61次 OPEC 會議에서 原油價 單一化 조치를 取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至今은 原油의 質을 勘案할 때 엄밀한 의

미에서 비싼기름과 싼기름의 概念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原油價 平準化制度는 本質적으로 그 意味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제까지의 安定基金制度 運用은 근본적으로 再檢討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從來의 平準化制度를 계속 실시할 경우, 精油社는 販賣收益이 높은 高價의 輕質原油 도입만을 選好하게 되어 輕質製品 위주의 需給不均衡을 초래케 되고 또한 外換負擔 및 油價引上要因을 加重시키는 이외에 低價原油導入이 沮害되는 문제점을 露呈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打開하기 위하여는 基金에 依한 高價差額補填制度를 廢止하여 競爭原理를 具現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從來 實施하여온 原油價平準化 制度를 버리고 平均複合單價를 基準原油價로 채택하여 原油費 部門에서도 競爭原理를 提高시킴으로써 우리의 需給計劃에 맞는 低價原油導入을 촉진시키고, 이를 通하여 外換負擔과 油價引上要因의 抑制, 그리고 製品間의 需給均衡을 도모키로 하였습니다.

高價差額 補填을 廢止함에 따라 安定基金 징수규모는 현재의 基金不足額 約 1,400億원을 向後 1年間に 걸쳐 辨濟할 수 있는 財源과 原油導入先 多邊化를 추진키 위한 최소한의 輸送費 差額 支援所要等

만을 감안하여 배럴당 현행 2.30 \$에서 0.7 \$로引下키로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國際原油價의 下落과 安定基金制度의 廢止效果를 반영하고 한편, 政府의 가스普及 施策에 따른 LPG輸入增加에 따른 精油社의 豫想 利益等を 勘案, 精製費 内譯을 일부 調整한 결과 總 2.82%의 油價引下財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같은 引下財源으로 政府는 國民經濟의 運用에 있어서 필요한 나프타等 3가지 基本油種을 선택하여 重點 支援하는 대신 다른 製品價格은 現水準을 유지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現時點에서 國際競爭力이 크게 뒤지고 있는 石油化學工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石油化學原料中 核心이 되고있는 에틸렌 價格을 主要競爭對象國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프타價格을 11.6%로 引下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앞으로 都市家庭燃料를 가스로 轉換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LPG價格을 단계적으로 引下하는 基本方針下에 이번엔 프로판과 부탄價格을 각각 10.6% 引下키로 하였습니다.

나프타와 LPG價格을 引下시키고 남은 財源은 산업의 基礎燃料인 B-C油 價格引下에 사용토록 함으

로써 國際價格에 比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인 B-C 油 價格을 평균 2.4%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現在 世界石油市場은 混迷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은 安定勢를 내다볼 수 있는 狀況이므로 油價管理制度도 종래의 姑息的인 틀을 탈피하여 市場經濟原理를 최대로 具現하는 方向으로 改編코자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油價 自律化方案은 石油政策의 主要課題인 需給 및 價格安定, 流通構造의 近代化, 그리고 世界石油市場 변화에의 對應能力等を 沮害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는 自律化 制度를 검토, 發展시키도록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油價制度 改善作業班을 編成·綜合的인 對策을 成案中에 있으며 82年 上半期까지는 기준계획 價格을 마련할 방침이다.

國民여러분!

이번 油價引下措置와 관련제도의 改編이 우리 經濟運用의 基本目標인 경제성장과 物價安定에 다스나마 도움이 될 것을 希願하면서 그동안의 '當部 에너지政策 大행에 對한 協助에 衷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海外短信 □

先進国, 石油依存經濟로부터 脱皮경향

原油價格의 하향추세는 先進国들이 石油依存 經濟로부터 탈피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더 계속될 것이라고 IEA가 전망하였다. IEA는 石油市場에 관한 최근의 特別展望에서 현재와 같은 供給 완화현상은 82年 1/4 分期까지 계속되며 需要도 지난해같은 期間보다 5~7%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IEA는 82年 全體의 世界原油需要는 80年보다 5%가 떨어졌던 81年 수준에서 현저히 減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需要가 이같이 떨어지는 것은 世界的으로 消費節約과 代替에너지 위주로 에너지政策이 전환됐기 때문이며 전적으로 備蓄物量의 過多放出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였다. IEA는 이 보고서에

서 先進国經濟의 脱石油化政策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現在 需要가 鈍化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經濟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價格이 낮아도 需要가 이를 따르지 못한다고 보았다.

IEA는 이러한 需要의 변화가 OPEC產油國들에게 새로운 壓力要因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OPEC產油量이 얼마가 될지 또 油價를 부양시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減産이 필요할지는 일부, 石油專門家들이 놀랄정도로 需要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問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